



'92 선도양축농가 3백11명 최종 선발 '94년까지 4백20억원 지원키로

농림수산부는 지난3일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비 한국축산을 이끌어 갈 선도양축농가 3백11명을 군심의회·도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최종 선발된 선도양축가는 ▲경기도의 경우 한육우 5명, 젓소 11명, 돼지 11명, 산란계 5명, 육계 5명 등 총 37명을 비롯 ▲강원도 41명 ▲충남 37명 ▲충북 36명 ▲전남 38명 ▲경북 38명 ▲제주 9명 등 산란계 46명, 육계 28명, 한육우 64명, 젓소 82명, 돼지 41명 등 모두 3백11명 농가에게 올해부터 오는 '9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4백20억원이 지원하게 된다.

무허가축사 신고현황 17일현재 4만5천여 농가 구제

정부가 무허가 축사 구제조치에 따른 추

인절차를 간소화 하공 법적제재를 완화 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신고, 또는 허가를 내는 양축농가가 증가 지난 17일 현재 4만 5천여 농가, 8만5천39동이 구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이번 신고기간이 농번기 인점을 감안하여 11월 말까지 연장 신고를 받기로 하였다.

각 지역별 신고사항은 표1과 같다.

표1. 무허가축사 신고 현황

지역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농가수	8,585호	2,832	1,647	14,812	7,487	5,923	4,729	2,328	351	45,993
동 수	16,951호	4,092	3,100	24,810	11,501	9,943	8,819	4,996	827	85,039
면 적	1,032천평	145	144	1,314	597	427	392	263	30	4,344

한국부화협회 종란 30% 식란으로 처분키로

한국부화협회는 최근 육계불황 대처방안으로 11월20일부터 '93년 2월20일(약100일간)까지 종란을 식란처분키로 결의했다. 협회는 지난5일 협회 회의실에서 김경남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장을 비롯 업계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급조절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같은 자율감축결의 보다는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로 감시단을 구성·운영키로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식란처분확인서를 농림수산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부권인 이천·광주지역에 있는 종계인들이 종란 약30여만개를 자발적으로 수거하여 식란처분을 지난 28일 이천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였다.

한국사료협회

전축종 사료생산량 증가세 지속

전 축종 배합사료 생산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10월한달 배합사료 생산량은 1백15만3천2백여톤으로 한달전 1백8만6천여톤대비 8.2%, 지난해 10월 1백4만9천2백여톤에 비해 9.9%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축종별 생산량을 보면 양계사료는 전월보다 0.1%, 작년동기대비 2.9%가 각각 늘어난 29만9백77톤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 보면 육추사료 3만6천7백톤, 산란계 13만7천2백톤, 9월대비 11.6%, 7.7%, '91년 10월보다 15.5%, 8.4%가 각각 늘어났다. 그러나 육계사료는 한달전에 비해 13.2%가 감소한 반면 일년전 동기대비 1.4%가 늘어난 9만1천여톤, 생산되었다. 또한 종계사료는 2만6천2백여톤으로 9월대비 2.9% 증가 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가 감소했다.

종계입식 수수 급증

생산농가 입추자제

본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종계입식수수는 산란계의 경우 56만3천7백90수수로 작년 동기기간에 44만2천9백수수에 비해 27.3%가 증가했다.

육계는 3백61만5천1백30수수로 지난해 동기기간 3백27만7천수수보다 10.3% 증가했다.

수입쇠고기 15.8% 인상

계·돈육 소비증가 기대

정부는 지난13일 수입쇠고기 포장육 소비자 가격을 15.8% 인상 시키고, 이로인해 추가로 조성될 5백억원을 한우 전문판매점 육성, 폐수처리시설 지원, 무허가축사양성화 등 축산농가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번 수입쇠고기 포장육 가격의 인상에 앞서 이미 계·돈육 가격안정을 위해 돈육 수매 150억원, 계육수매 12억원 등 모두 162억원의 수매자금을 축협, 한냉 등에 지원 수매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번 조치는 계·돈육 소비증가와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돈육 군납확대

계육 2백톤, 돈육 90톤 납품키로

축협은 계·돈육 가격안정을 위해 12월분 축산물군납물량중 쇠고기를 줄이는 대신 계·돈육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위해 전국 군납조합이 해당군부대와 협의, 쇠고기 납품량을 14% 가량을 감소시키는 대신 계육 2백톤, 돈육 90톤을 늘려 납품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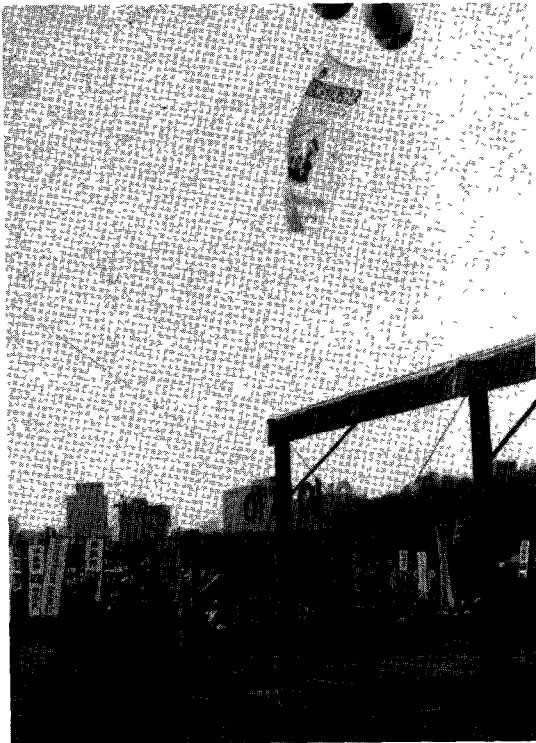
단미사료 생산량 증가

보조사료는 감소추세

한국단미사료협회 조사에 따르면 단미사료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보조사료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지난달 단미사료 생산량은 4만1천1백25만톤으로 전월대비 4%, 저년동기대비 9%가 각각 늘어 났으나 보조사료는 각각 2%, 14% 감소했다.

**농축산기계박람회 성료
총16개국 1백95업체 참가**



농축어민에게 시장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능력 배양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능력을 제시코자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에서 주최한 「'92 서울국제농림축수산기계 과학기술 박람회」가 지난 16일~22일(7일간)까지 한국종합전시장(KOEX) 별관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네덜란드, 일본, 미국 등 16개국 195개 업체가 참가하여 첨단

자동화시스템부터 소형기계까지 1차산업용, 기계, 기구 2천여점이 전시되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축산기계공업협회
일본 축산기자재 개발 보급협회와 연석회의**

한축기협(회장 양창욱)은 지난 '92 SIEMSTA기간중 지난 17일 한축기협 사무실과 19일 이태원 소재 캐피탈 호텔에서 일본 축산기자재 개발협회 및 일본 전농의 Unicoop Japan(주식회사 조합무역)관계자 30여명과 연석회의를 갖고 향후 축산기자재에 대한 관심사 등 정보를 교류하기로 하였다.

**농기협 회장에 정장변씨 선출
명예회장에 유달영씨 추대**

전국 농업기술자협회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 회장인 유달영씨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상근부회장직을 맡고있던 정장변(鄭長變)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